

李退溪의 書院觀**

朴 洋 子*

● 目 次 ●

I. 序 言	V. 書院 敎學의 내용에 관한 退溪의 견해
II. 「書院十詠」	VI. 書院 안의 廟祠에 관한 退溪의 견해
III. 中國의 書院에 관한 退溪의 견해	VII. 退溪의 篤志願學정신
IV. 創設期の 朝鮮 書院의 實體와 그에 대한 退溪의 견해	

I. 序 言

유학 그 중에서도 특히 주자학을 국시로 채택한 조선시대 사상의 특색을 밝히기 위해서는, 사립 교육기관으로서 전국 각지에 설립된 서원의 존재는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연구과제이다. 특히 이른바 사림파가 등장한 16세기 이후, 정치·경제·교육사상 등 문화 전반에 걸쳐서 서원이 담당했던 역할 및 영향은 지대하고도 광범했다고 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서원은 조선 특유의 제도는 아니고, 그 연원은 멀리 중국 송대초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원래는 관청에 부속되어 있는 서고라든가 또는 개인의 서재를 지칭하는 말이었으나, 송대가 되면 오로지 사립학교, 민간의 교육기관을 가리키게 되었다. 이 서원은 공자 이래 유학의 전통이라 할 수 있는 학문존중 및 학문애호 정신을 본받아 만들

* 강릉대 철학과 교수

** 퇴계학 연구원, 『퇴계학보』 제83호, (1994) 게재논문

어진 것으로, 宋初에는 白鹿洞書院, 嶽麓書院, 應天府書院, 崇陽書院이 宋朝 四大書院으로 이름이 나 있었다.¹⁾ 이들 서원은 나중에 쇠퇴하게 되는데, 南渡 이후, 朱子에 의해서 廬山의 백록동서원이 증건된 것을 계기로, 민간 교육기관으로서의 서원의 역할이 재평가되어, 그후 清朝 초기에 이르기까지 중국 각지에 엄청난 수의 서원이 만들어졌다. 특히 원·명시대는 전성기로서,²⁾ 조선의 서원은 그 영향을 받아 창설된 것이다.

조선조 서원은, 『世宗實錄』 世宗 卽位年(1418년) 條에 처음 보이기 시작한다. 만일 서원을 설립하여 학생들을 가르치는 유생이 있으면 보고하고 포상하라는 기록이 있는 것이라든지, 또한 당시 평안도의 관찰사가 서원을 만들어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던 咸宗縣의 生員 姜友諒이란 인물을 州縣學의 訓導로 발탁하여 줄 것을 세종에게 주청했다는 기록이 있는 것을 보면, 세종시대에도 이미 서원이 있었던 것 같으나, 그러나 이 서원의 성격이 과연 어떠한 것이었는지, 그 실제에 대해서는 아직 규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尊賢講道」, 「尊賢養士」라고 하는 명확한 이념을 가지고 설립된 본격적인 서원의 출현은, 이른바 사림파가 대두하게 된 16세기 중엽 이후의 일로, 1543년 중종 38년에 풍기군수 주세붕에 의해서 창건된 백운동서원이 그 효시가 되고 있다. 백운동서원은 고려 말기 원나라에서 주자학을 전래한 안향³⁾의 위업을 顯彰하기 위하여, 안향의 故居에 설립된 것이다. 그 이후 각지에 서원과 祠宇가 각 봉당에 의해 다투어 설립된 속종조 말기에는 680여개소에 이르고 있고,⁴⁾ 또한 『增補文獻備考』에 기록되어 있는 서원만 해도 327개소나 되어, 조선시대에 서원이 얼마나 큰 성황을 이루고 있었는지를 이로써 알 수 있다. 또한 1741년 영조 17년에는 서원 19개소, 祠宇 154개소 등 173개소의 서원과 사우가

1) 『玉海』 卷167, 宋朝四書院. 『文獻通考』 卷46, 學校7 등 참조

2) 曹松葉編 『宋元明清書院概況』, 中山大學

3) 1243~1306, 初名은 裕, 字는 士蘊, 號는 晦軒, 諡號는 文成.

4) 鄭萬祖, 英祖 17년의 祠院毀撤, 韓國學論叢, 제9집, 國民大, 1987

철2거된 적도 있었고,⁵⁾ 또 1871년 흥선대원군 집권시에는 47개소의 서원만 남고 그 나머지는 모두 훼손되는 대파란을 겪고 있는데, 서원과 사우에 대하여 이처럼 강경한 법제재를 가하지 않으면 안되었다고 하는 것에서, 오히려 서원이 조선조 사회에서 차지하고 있었던 비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 수 있다.

서원이 담당하고 있었던 사회적 기능에 대한 그간의 인식은, 일본의 식민지사관의 영향을 받아 서원의 기능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압도적이었다. 예를 들어 『새國史事典』 書院條에⁶⁾ 書院末流의 폐해만을 부각시켜, 서원이 학문연구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기는 커녕 오히려 당쟁의 본거지가 되었다고 본 점, 그리고 서원에 가담하는 양민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세금과 징병 및 부역의 의무를 기피하는 백성이 늘어나, 그 결과 국가의 재원을 축내었다고 한 점, 또한 서원이 중심이 되어 양민을 토색하고 체벌을 가하는 폐해 등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는 거의 서원의 부정적인 측면에만 초점을 맞춘 비판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이러한 식민지사관을 거부하고 서원에 대한 재조명을 하려는 시도가 학계 일각에서 없었던 것은 물론 아니다. 조선조 서원에 대한 인식 변화는 1980년대초 사학계를 중심으로 일어난 이른바 당쟁에 대한 재해석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가운데에서도 서원의 설립을 유교적인 향촌질서 재확립을 위한 시도로 보고, 사림의 세력을 결집하는 구심적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보는 李泰鎭 교수의 연구와⁷⁾ 서원의 설립을 특히 도학정치 이념하의 교학진흥책과 밀접하게 관계시켜 보는 鄭萬祖 교수의 연구⁸⁾가 그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서원이 그동안 저질러 온 막심한 폐해에 대하여 부정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지만, 그러나 조선조 사회에 있어서 서원이 그토록 융성했고, 후일 붕당의 본거지가 되어 막심한 폐해를 일으킨 데에는 반드시 그럴

5) 增補文獻備考 卷210, 學校考9, 祠院總論, 英祖 17년條

6) 완벽 새國史事典, 李弘植博士編, 글동산, 1980

7) 李泰鎭 朝鮮儒敎社會史論, II 제10장, 士林과 書院, 지식산업사, 1989

8) 鄭萬祖 朝鮮書院의 成立過程, 韓國史論 8, 1981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조선조 서원의 설립동기, 그것은 과연 趙光祖의 至治主義 정치 실패 이후 나타난 사림파의 道學정치의 시대적 요청인가, 아니면 在地地主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신분 상승을 기하기 위한 본거지로서의 사림들의 일련의 지구책의 하나인가.

본론에서는 조선조의 여러 서원설립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여하고, 또한 서원 의례의 사표가 된 퇴계의 서원관에 초점을 맞추어, 조선조 서원의 사상적 특성에 대하여 일별해 보기로 한다.

II. 「書院十詠」

조선조의 서원은, 明代에 전성기를 맞이한 중국 서원의 자극을 받아서 탄생된 것이다. 그러나 처음 설립될 당시의 서원에는 몇 가지 곤란한 문제가 있어서, 순조롭게 조선사회에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일찍이 서원의 존재의의를 알아내어, 서원교학의 진흥에 주력한 사람이 李退溪(1501~1570, 名은 滉, 字는 景浩, 退溪는 그의 號)이다. 『退溪全書』⁹⁾ 卷4에 「書院十詠」이라고 하는 連作詩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 시는 퇴계 65세시의 作으로, 豊基의 竹溪書院, 永川의 臨臯書院, 海州의 文憲書院, 星州의 迎鳳書院, 江陵의 丘山書院, 咸陽의 藍溪書院, 永川의 伊山書院, 慶州의 西岳精舍, 大邱의 畫巖書院 등의 9개소의 서원을 표창하기 위해 읊은 시로, 맨 나중에 이들을 총괄하는 總論詩 1首가 붙어 있다. 이 시들을 읽어 보면, 퇴계가 서원을 얼마나 중시하고 있었으며, 또한 서원의 학문교육에 대하여 얼마나 큰 기대를 걸고 있었는가를 알 수 있게 된다. 「書院十詠」의 시를 들어 보면 아래와 같다.

竹溪書院¹⁰⁾ 豊基

9) 增補退溪全書, 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研究院, 1985

竹溪風月煥宮墻，肇被恩光作國庠
絃誦可能追白鹿，明誠誰似導南康

죽계의 달과 바람 궁장에 빛나더니
나라 은혜 일찍 입어 國學으로 되었어라
거문고와 글 소리가 白鹿洞을 따랐거나
뉘라서 朱子처럼 명과 성을 지도할꼬

臨臯書院¹¹⁾ 永川
圃翁風烈振吾東，作廟渠渠壯學宮
寄語藏修諸士子，淵源節義兩堪宗

포은옹 그 절개가 이 나라에 떨쳤으니
커다랗게 사당짓고 학궁도 장할시고
수양하는 선비에게 한 말씀 부치노니
그 연원과 그 절의 둘 다 숭양하여 주오.

文憲書院¹²⁾ 海州
海陽儒學蕩城塵，野草春風燒更新
不向山林思變作，謾將書院誇叢臻

海州의 선비 학문 풍진에 탕진되고
들풀이 봄바람에 불탔더니 다시 돋네
山林을 진작시킨 그 일을 생각잡고
헛되이 서원에다 비방만 모여드네

迎鳳書院¹³⁾ 星州

-
- 10) 白雲洞書院이 榮豐郡 淳興에 있는 竹溪邊에 있으므로 竹溪書院이라고도 함.
1550년에 紹修란 賜額을 받은 후로는 紹修書院으로 불리움. 安裕·安軸·安
輔와 周世勳 入享.
11) 圃隱 鄭夢周 入享
12) 九齋 崔沖 入享
13) 程이·朱熹 入享, 寒暄 金宏弼 從享. 후일 川谷으로 바뀌었음.

鳳山儒館極恢張, 聚訟賢祠挾謗傷
但願諸賢明此學, 閒爭浮議自消亡

봉산에 서원 세워 극도로 넓혔는데
祠宇에 송사 모여 험뜯기만 일삼아라
원컨대 여러분이 이 학문을 밝히면은
헛된 다툼 뜯 議論이 저절로 없어지리

丘山書院¹⁴⁾ 江陵
人材淵藪古臨瀛, 關學丘山澗石清
降聖千年名已近, 乞靈今日教將明.

인재가 많이 나는 임영 옛 고을에
메 위에 학교 세워 시내 바위 맑았어라
천년에 聖人 난 곳 그 이름이 같았으니
이제 산령께 빌어 교화 장차 밝게 하오

濼溪書院¹⁵⁾ 咸陽
堂堂天嶺鄭公鄉, 百世風傳永慕芳
廟院尊崇眞不忝, 豈無豪傑應文王

당당한 천령 밑에 정공의 시골이라
백세에 전한 바람 꽃다움을 길이 생각하네
서원을 높이는 일 참으로 좋으니
문왕에 응할 호걸 어이하여 없단 말고

伊山書院¹⁶⁾ 永川
地靈人傑數龜城, 創立儒宮事亦貞
諱避不須生院號, 絃歌猶待樹風聲

14) 書院名은 원래 五峰이나, 丘山에 있었으므로 丘山書院이라고도 불리움. 孔子를 入享

15) 一두 鄭汝昌 入享

16) 후일 退溪先生 入享

좋은 땅에 잘난 사람 귀성을 손꼽으니
 서원을 창립함도 그 역시 좋은 일을
 어찌 그 이름 갖고 논란할 것이 있으랴¹⁷⁾
 거문고와 노랫소리 풍성이 적지 않네

西岳精舍¹⁸⁾ 慶州
 東都賢祀謗何頻, 變置眞成學舍新
 但使菁莪能長育, 涵濡聖澤屬儒紳

동도 어진 이 사당 헐뜯음도 하도 할샤
 배움집을 이룩하니 둘이 다 새로워라
 다만 당 학자들을 이에 많이 길러내면
 나라 은혜 흡족함이 선비에게 미치려다.

畫巖書院¹⁹⁾ 大邱
 畫巖形勝畫難成, 立院相招誦六經
 從此佇聞明道術, 可無呼寐得群醒

畫巖의 좋은 경계 그러서도 못 이루리
 서원 짓고 서로 모여 육경을 외웠노라.
 듣건대 이제부터 학문이 밝으려니
 못 졸음 불러 일으켜 깨워볼 이 없으리오.

總論諸院
 白首窮經道未聞, 幸深諸院倡斯文
 如何科目波瀾海, 使我閒愁劇似雲

늡도록 경서 연구 도를 듣지 못했더니
 다행히도 여러 서원 이 글을 빛내어라

17) 伊川書院記에 의하면, 書院名과 入享할 先賢을 두고 약간의 논란이 있었다.
 18) 薛聰·崔致遠·金庾信 入享
 19) 후일 退溪先生 入享. 寒岡 鄭述와 愚伏 鄭經世를 配享. 후일 研經으로 고침.

어이하여 科擧길이 온 바다를 뒤집어서
나의 시름 일으키어 구름처럼 가리시고

또한 『增補文獻備考』나 『俎上錄』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당시의 서원으로서는, 1534년 설립된 전라도 부안의 道東書院, 1543년 설립된 紹修書院, 1549년 설립된 文憲書院, 1552년 설립된 藍溪書院, 1555년 설립된 臨臯書院, 1556년 설립된 丘山書院, 1559년 설립된 伊山書院, 1560년 설립된 川谷書院, 1561년 설립된 西岳精舍의 이름이 올라 있는데, 이 가운데 퇴계의 「書院十詠」에 수록되지 아니 한 서원은 전라도의 道東書院이 있을 뿐이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도, 퇴계가 서원에 대해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알게 된다. 그렇다면 퇴계는 어째서 이처럼 서원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인가.

퇴계의 서원에 관한 견해는 「上沈方伯書」,²⁰⁾ 「擬與永川守論紹修書院事」,²¹⁾ 「擬與豐基郡守論書院事」,²²⁾ 「伊山書院記」,²³⁾ 「迎鳳書院記」,²⁴⁾ 「易東書院記」²⁵⁾ 등을 비롯하여, 『退溪全書』 각처에 散見되고 있다. 이 자료들을 잘 읽어 볼 것 같으면, 퇴계가 중국에서 서원이 성립된 경위와 그 존재 의의를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었으며, 더 나아가 그것을 통해서 퇴계가 회구해 마지 않았던 참된 학문, 참된 교육이 과연 어떠한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된다. 그와 동시에 당시 조선에 설립된 서원의 실체가, 퇴계가 이상으로 삼고 있었던 서원 본연의 모습, 말하자면 퇴계가 마음 속에 그리고 있었던 중국의 서원 본연의 모습과 어떻게 상이했는가 하는 점도 알 수 있게 된다. 퇴계가 서원성립의 경위와 그 존재 의의를 반복해서 여러 번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은, 당시 조선의 서원이 서원 본연의 모습에 크게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며, 이를 어

20) 退溪全書 卷9

21) 同卷 12

22) 同卷 12

23) 同卷 42

24) 同卷 42

25) 同卷 42

떻게 해서라도 서원 본래의 본연의 모습에 근접시켜 가려는 퇴계의 강렬한 願望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Ⅲ. 중국의 서원에 관한 퇴계의 견해

우선 「上沈方伯書」에 관해서 말할 것 같으면, 이는 퇴계가 풍기군수로 근무하고 있었던 1549년 퇴계 49세시, 당시 경상도 관찰사였던 沈通源에게, 백운동서원에 사액을 내려줄 것을 청원하여 올린 서신이다. 이 서신 가운데에서 퇴계는, 백운동서원 설립의 유래를 기술한 후, 화제를 중국으로 옮겨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대저 서원이란 이름은 옛적에는 없었습니다. 南唐²⁶⁾ 때 일찍이 李渤²⁷⁾이 은거했던 廬山 白鹿洞²⁸⁾에 學宮을 설립하여 師生을 두고 가르치면서 이를 國庠이라 했는데, 이것이 서원의 처음입니다. 宋朝가 이를 따랐으나 그 중엽까지도 오히려 번성하지 않아 천하에 다만 네 서원이 있을 따름이었습니다. 渡江 이후²⁹⁾ 못 전쟁으로 혼란한 때임에도 불구하고 閩越·浙江·湖北·湘南 사이에 斯文이 울창하게 일어나 선비의 배움이 날로 융성해졌습니다. 서로 사모하고 본받아 곳곳에 서원을 세워, 비록 오랑캐 元이 중국을 훔쳐 웅거했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먼저 太極書院을 세워 천하에 창도했습니다. 우리 대명이 천하를 담당하면서 문화가 크게 闡揚되고 학교의 행정이 더욱 더 닦아지고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一統志³⁰⁾ 실린 것만 가지고 살펴보더라도, 천하의 서원이 모두 300여개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실리지 않은 것도 생각컨대 또한 많았을 것입니다. 대체로 王宮·國都로부터 여러 고을에 이르기까지 학교가 없는 곳이 없었습니다. 되돌아 보건대 무엇 때문에 서원을

26) 唐이 망하고 宋이 건국하기 이전, 五代의 十國 가운데 하나.

27) 唐代 洛陽人. 字는 潛之, 號는 少室山人.

28) 江西省 북쪽 廬山下 동리 이름

29) 南宋시대

30) 大明一統志를 말함

취하고, 중국에서 저처럼 서원을 높임은 무슨 이유입니까. 은거하여 뜻을 구하는 선비들은 道를 강명하고 사업을 익히는 倫이, 대체로 이들은 세간에서 시끄럽게 경쟁하여 다투는 것을 싫어하여, 典籍을 깊어지고 넓고 한가한 들판이나 물가로 피하여 물러나, 先王의 道를 노래하고 읊습니다. 고요히 天下의 義理를 살피면서 德을 쌓고 仁을 몸에 익혀, 이것으로 즐거움을 삼습니다. 따라서 즐겨 서원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國學이나 鄉校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城郭 가운데 있어서 앞으로는 學승에 구애받고, 뒤로는 異物에 마음이 옮겨가고 빼앗기는 것과 비교해 보면, 그 공효가 어찌 같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로써 말한다면 다만 선비가 학문을 함에 있어서 그 힘을 서원에서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가 賢人을 얻음에 있어서도 또한 서원이 반드시 국학이나 향교보다 나은 것입니다.³¹⁾

이것은 직접적으로는, 중국에서는 어째서 서원이 필요했고, 또한 어째서 것처럼 번창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러한 서원의 필요성은, 조선왕조에 있어서도 동일했던 것이다. 퇴계는 前文을 이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오로지 우리 東國에서 가르침을 여는 방법은 한결같이 중국의 제도를 따라서, 안으로는 成均四學이 있고, 밖으로는 鄉校가 있어 가히 아름답다 말할 만합니다. 그러나 오직 서원에 관해서는 아직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이는 곧 우리 東方의 一大 欠典이라 할 것입니다.³²⁾

31) 退溪全書 卷9 上沈方伯書: 夫書院之名, 古未有也. 昔南唐之世, 就李渤舊隱廬山白鹿洞, 創立學宮, 置師生以教之. 謂之國庠. 此書院之所由始也. 宋朝因之. 而其中葉, 猶未盛. 天下只有四書院而已. 渡江以後, 雖當百戰搶攘之日, 而閩浙湖湘之間, 斯文蔚興, 士學日盛. 轉相慕效, 處處增置, 雖以胡元竊據, 猶知首立太極書院, 以倡天下. 逮我大明當天, 文化大闢, 學校之政, 益以修舉. 今以一統志所載考之, 天下書院, 總有三百餘所. 其所不載者, 想又多也. 夫自王宮國都, 以及列郡, 莫不有學. 顧何取於書院, 而中國之所尚如彼何哉. 隱居求志之士, 講道肄業之倫, 率多厭世之羈競, 抱負墳策, 思逃於寬閒之野, 寂寞之濱, 以歌詠先王之道. 靜而闡天下之義理, 以畜其德, 以熟其仁, 以是爲樂. 故樂就於書院. 其視國學校, 在朝市城郭之中, 前有學令之拘碍, 後有異物之遷奪者, 其功效, 豈可同日而語哉. 由是言之, 非惟士之爲學得力於書院, 國家之得賢, 亦必於此, 而優於彼也.

당시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으로서, 중국의 제도를 모방하여 수도 한성에는 이미 成均四學이 설치되어 있었고, 또한 전국 각지에는 향교가 개설되어 있었다. 이것들은 그 나름대로 탁월한 제도였으나, 그러나 이들 관립의 교육기관은, 중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어느 것도 모두 科擧法令의 구속을 받아서 형식적인 교육밖에 시행되지 못하였다. 또한 교육환경도 도시 한가운데 있었으므로 여러 가지 유혹도 많았고, 또한 아주 열악한 상태였다. 그리고 15세기 말에서 16세기 중엽에 걸쳐서 4번이나 일어난 사화는, 학생들로 하여금 면학의욕을 잃게 하여 교육의 황폐화에 박차를 가할 따름이었다.³³⁾ 이처럼 形骸化되고 황폐해 있던 학교교육을 다시 한 번 본래의 모습으로 복구하여 「尊賢養士」의 결실을 이루기 위해서는 「篤志願學의 선비」 환언하면 伊尹이 가졌던 원대한 포부와 顏回가 즐겨한 학문을 마음속 깊이 존중하고, 애호해 마지 않는 好學의 선비에 의해서 이른바 「寬閒之野, 寂寞之濱」에 설립된 사립학교인 서원에 기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퇴계가 지금껏 조선에 서원이 없었던 사실을 「一大欠典」이라고 하여 서원의 창설을 간절히 원했던 이유도 실은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주세붕이 백운동서원을 창설한 것은, 퇴계에게는 숙원이 이루어진 그야말로 「前古所無之盛擧」³⁴⁾였던 것이다. 「伊山書院記」에도 이와 거의 같은 主旨의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일찍이 듣건대 사람에게 道가 있음에도 가르침이 없으면 곧 禽獸에 가깝다. 聖인이 이를 근심하여 人倫을 가르쳤다. 三代의 학문은 모두 인륜을 밝힌 것이다. 후세에 이르러 聖王이 일어나지 않아, 古道가 무너져 없어졌다. 그리고 文詞·科擧·利祿의 습성이 사람의 心術을 어지럽혀, 광란으로 치달아 돌아오지 못함으로, 안으로는 國學, 밖으로는 鄉

32) 同卷 9 上沈方伯書: 惟我東國迪教之方, 一遵華制, 內有成均四學, 外有鄉校, 可謂美矣. 而獨書院之說, 前未有聞. 此乃吾東方一大欠典也.

33) 당시 國學의 황폐한 상황에 대해서는 『退溪全書』 卷41, 論四學師生文 등에 자세히 적혀 있다.

34) 退溪全書 卷9, 上沈方伯書.

校가 昧然하여 그 가르침을 알지 못하고, 막연하여 학문을 일삼지 않았다. 이는 뜻있는 선비들이 發憤하여 길게 탄식하고, 서적을 등에 지고 수풀이 우거진 깊은 산중으로 피하여 나가, 서로 그 들은 바를 강론하며, 그 도를 밝혀서 자신을 성취시키고 다른 사람들도 성취시키는 소이다. 서원의 일어남은 후세 그 勢가 부득불 그러한 것이니, 그 일의 가상함이 어떠한가.³⁵⁾

퇴계는 참된 교육, 참된 학문이란 인륜을 밝히는 데 있다고 하여, 이러한 입장에서 文詞·科擧·利祿의 습성에 중독된 국학과 향교의 체질을 날카롭게 비판한 후에, 후세에 어찌서 서원이 필요하게 되었는가 그 성립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하나 더 들어 말하면, 「迎鳳書院記」 가운데에서 퇴계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옛날 三代之의 융성할 적에는 教法이 극히 잘 갖추어져, 家에는 塾이 있고, 黨에는 庠이 있고, 州에는 序가 있고, 國에는 學이 있었다. 생각컨대 가는 곳마다 學이 아닌 곳이 없었다. 후세에 이르러 敎學이 붕괴되어, 국학·향교는 겨우 文具만 있을 뿐, 家塾黨庠의 제도는 텅비게 되었다. 伊尹이 가졌던 원대한 뜻을 돈독히 하고 顔回가 즐긴 학문을 공부하기 원하는 선비들로 하여금 書冊을 지고도 돌아갈 곳이 없음에 이르렀다. 이것이 서원이 일어나게 된 이유이다. 대개 서원은 家塾黨庠과 그 제도는 비록 같지 않지만, 그 의의는 귀착점이 같다. 그 풍속순화에 관계됨이 심히 크다. 그러므로 道를 아는 선비와 善政을 원하는 군주는 여기에 정성을 다하지 않음이 없었다. 중국의 서원이 近古에 융성한 소이다.³⁶⁾

35) 同卷 42, 伊山書院記: 抑嘗聞之, 人之有道也, 無敎則近於禽獸. 聖人有憂之, 敎以人倫. 三代之學, 皆所以明人倫也. 至於後世, 聖王不作, 古道崩滅. 而文詞科擧利祿之習, 潰人心術. 馳狂瀾而莫之回, 則內而國學, 外而鄉校, 皆昧然莫知其敎, 漠然無事乎學矣. 此有志之士, 所以發憤永嘆, 抱負墳策, 而遁逃於山巖藪澤之中, 相與講所聞, 以明其道, 以成己而成人. 則書院之作, 於後世勢不得不然, 而其事之可尙爲如何哉.

36) 同卷 42, 迎鳳書院記: 昔在三代之隆, 敎法極備, 家有塾, 黨有庠, 州有序, 國有學. 蓋無適而非學也. 降及後世, 敎壞而學崩, 則國學鄉校, 僅有文具, 而家塾黨庠

이것은 중국 그 중에서도 특히 근대에 서원이 그토록 융성했던 이유를 기술한 것인데, 이로써 퇴계의 서원관의 대략을 알 수 있다.

IV. 창설기의 조선 서원의 실체와 그에 대한 퇴계의 견해

그러나 전술한 것처럼, 조선 사회가 아무런 저항없이 순조롭게 서원 제도를 받아들였던 것은 물론 아니다. 이는 전계 「上沈方伯書」에,

周郡守가 처음 서원을 건립할 시에, 세속에서는 이를 자못 의심하고 해괴하게 여겼으나, 주군수의 뜻은 더욱 독실하였다. 못 사람의 비웃음을 무릅쓰고 여러 사람의 비방을 배격하였다. 前古에 없던 훌륭한 사업이다.³⁷⁾

라고 적혀 있는 것은, 주세붕이 백운동서원을 창설하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를 이상하게 여겨 조소하고 비방한 것을 말해 주고 있다. 인재양성의 장소인 국학과 향교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데, 그것과는 별도로 개인이 일부러 서원을 만든다고 하는 의미가,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이해되지 않았던 것이다. 후일 퇴계도 이를 문제삼고 있는데, 이는 한마디로 서원에 대한 물이해가 빚은 사건이라 할 수 있다. 백운동서원의 관리자 가운데 학생들과 충돌이 생겨 그 때문에 학생 전원이 서원을 비운 사건이 바로 그것이다. 이 사건의 顛末은 퇴계 56세 때 지은 「擬與永川郡守論紹修書院事」와 57세 때 지은 「擬與豐基郡守論書院事」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이 두 책은 개인을 공격한다고 하는, 퇴계로

之制寥寥焉。至使篤志願學之士，抱墳策而無所於歸。此書院之所由以起也。夫書院之與家塾黨庠，制雖不同，義則同歸。其有關於風化也甚大。故知道之士，願治之主，莫不於是而拳拳焉。所以中國書院，鼎盛於近古。

37) 同卷 9, 上沈方伯書: 周侯之始建書院也, 俗頗疑怪, 而周侯之志益篤. 冒衆笑排群謗而辦此. 前古所無之盛舉.

서는 상당히 격한 내용의 서한이었던 탓인지, 결국 발송되지는 않았다. 「擬」라는 글자가 이러한 사실을 나타내 주고 있다. 여하튼 이 두 서한을 읽어보면, 당시의 서원 관계자들 가운데에는 서원이 지니고 있는 숭고한 교학정신을, 퇴계가 기대한 만큼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사건은 당시 金仲文이란 인물이 소수서원 즉 백운동서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모욕적인 폭언을 퍼부어, 그로 인해 학생들이 분개하여 전원이 서원을 그만두어 버린 사건이다.

滉이 들건대 서원의 모든 학생들이 봄부터 흩어져서 연말이 된 지금까지도 아직 다 돌아오지 않은 듯합니다. 저르기 탄식하고 한스러우면서도 무엇을 해야할 지 알 수 없습니다. 나라가 서원의 설립을 허락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장차 현인을 높이고 선비를 길러, 즐겨 인재를 육성할 장소로 삼고자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金仲文이 有司가 되었으면, 마땅히 국가의 아름다운 뜻을 준수하여 삼가 그 직책에 근면하며 선비들로 하여금 즐겨 이 곳에 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거만하여 예의를 무시하고, 학생들을 마치 어린애 취급하여 비루하고 천한 말을 발함에 이르러서는 학생들이 격노하여 서원을 비우고 떠난 것이, 어찌 학생들의 잘못이라고만 할 수 있겠습니까.³⁸⁾

前掲 「上沈方伯書」에 의하면, 金仲文은 백운동서원의 창설자인 주세붕이, 서원의 관리를 위임한 인물인 듯하다. 그러나 서원의 존재의의에 대한 이해가 극도로 부족했기 때문에, 상술한 것 같은 사건을 일으키고 말았던 것이다. 이에 대하여 퇴계는 당시의 군수에게,

38) 同卷 12, 擬與榮川守論紹修書院事: 滉聞書院諸生, 自春散去, 至今世, 盡而猶未復聚. 心竊嘆恨, 不知所以爲計也. 國家之許立書院何爲也哉. 將非尊賢養士, 樂育人材之地也乎. 金仲文爲其有司, 所當遵國家之美意, 敬謹其職, 使多士樂就之可也. 乃反据傲鮮進, 視諸生如小兒, 至發鄙賤之語, 則諸生之激怒, 空院而去. 豈可謂諸生之過也哉.

국가가 서원을 세우도록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현인을 존중하고 선비를 길러, 즐겨 인재를 육성하는 곳으로 삼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³⁹⁾

대저 서원이란 무엇 때문에 세워진 것입니까. 그것은 賢人을 尊崇하고 道義를 강론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까. 宋朝의 四書院 이래로 (서원은) 南宋 대에 점차 성해져서, 元代·明代에는 크게 융성하였습니다. 저 數代에 國學과 鄉校가 없었던 것이 아닌데도 반드시 다시 서원을 세운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국학과 향교는 科擧의 법령의 구속을 받아서, 서원이 현인을 높이고 도의를 강구하는 아름다운 뜻에 전념하는 것만 같지 못하기 때문입니다.⁴⁰⁾

라고 말하여 국가가 서원의 설립을 허가한 것은, 「尊賢養士」·「尊賢講道」라고 하는 숭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서원이, 科擧의 법령의 구속을 받고 있는 국학·향교보다도 뛰어난 교육효과를 살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일반 인사들을 향해서는 서원과 여기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을 소홀하게 다루지 않도록 요청하고, 그리고 조정에 대해서는 서원의 庇護를 더욱 강화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퇴계는 당시 일반 사람들이 서원의 존재의의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서원을 지도할 사람을 식별하지 못한 점에 있다고 하면서, 「尊賢養士」, 「尊賢講道」라고 하는 이 숭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서원의 지도자는 엄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東魯인 우리나라에도 천재일우의 運이 돌아와 또한 近代에 創見되고, 그후 계속하여 설립되니, 조정에서도 이에 쫓아 장려하고 육성해 주었다. 어찌 斯道의 큰 행운이 아니겠는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직 老師

39) 同卷 12, 擬與榮川守論紹修書院事: 國家之許立書院何爲也哉. 將非尊賢養士, 樂育人材之也乎.

40) 同卷 12, 擬與豐基郡守論書院事: 夫書院何爲而設也. 其不爲尊賢講道而設乎. 自宋朝四書院之後, 漸盛於南渡, 而大盛於元明之世. 彼數代, 非無國學鄉校, 而必更立書院者何也. 國學鄉校有科擧法令之拘, 不若書院可專於尊賢講道之美意.

宿儒를 山長으로 삼아 가르침을 주관하고 이를 이끌어 가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서원에 입학한 선비가, 공연히 찬연하게 광대한 뜻을 가지고 있어도 끝내 마음을 俗習의 비루함에 빼앗겨, 聖人の 가르침을 잊어버리고 後賢의 뜻을 잃어버림을 면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지금 무엇에 종사해야만 가할 것인가.⁴¹⁾

중국에서는 서원에 반드시 儒先 가운데 道를 아는 사람을 택하여 이를 山長으로 삼아, 盟主가 되어 이끌어 간다. 그러므로 道術이 분리되지 않고, 배우는 자는 향할 바를 알게 된다. 우리 東方은 서원의 가르침이 새로 일어나, 이 典範이 아직 강론되지 않았다. 간혹 서원에 드는 선비 가운데 그 학문방법이 불행히도 古人의 爲己之學에서 나오지 아니하고, 다만 과목을 강론하고 경쟁하는 일만을 높이고 힘쓰면, 매일 書林·藝苑 가운데에서 從事한다 하더라도 聖賢의 담장 가까이 가기를 구하는 것은, 비유하면 마치 越나라를 가는데 수레를 북쪽으로 돌림과 같으니, 이를 마음에 돌이켜 생각해도 얻음이 없고, 이를 일에 헤아려 보아도 괴리가 너무 크다. 이 어찌 심히 두려워하지 않을손가.⁴²⁾

이들 자료에 의하면, 퇴계의 눈에 비친 당시 서원의 결함은, 「不以老師宿儒爲山長, 以主教而倡率焉」 즉 서원의 지도자로 적합한 인물을 발견하지 못한 것, 환언하면 「尊賢」의 입장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었다. 그 때문에 서원 본래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지 못하고, 따라서 서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의식도, 국학과 향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과 큰 차이가 없었던 것이다. 퇴계가,

41) 同卷 42, 伊山書院記: 吾東魯千一之運, 亦創見於近代, 繼作於其後, 朝廷又從而獎成之. 豈不爲斯道之大章耶也. 雖然尙不以老師宿儒爲山長, 以主教而倡率焉. 故入院之士, 徒有斐然狂簡之志, 而竟未免奪於俗習之卑, 忘聖人之教, 失後賢之意. 然則今何所從事而可乎.

42) 同卷 42, 迎鳳書院記: 上國(中國)之於書院, 必擇儒先之知道者爲之山長, 主盟以倡率. 故道術不分, 而學者知所趨矣. 若吾東方, 則院教新興, 而此典未講. 當或入院之士, 爲學之方, 不幸而不出於古人爲己之學, 而惟科目譁競之事, 是尙是務, 則雖曰從事於書林藝苑之中, 而求邇聖賢之門牆, 比如適越而北轅, 反之於心而無得, 揆之於事而太乖. 豈不可畏之甚耶.

滉이 삼가 故事를 살피건대, 무릇 서원에는 반드시 洞主나 山長이 있어서 이를 스승으로 삼아, 그 가르침을 관장합니다. 이는 하나의 大事니, 마땅히 들어 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는 마땅히 遺逸之士나 閑散한 사람 중에서 고르되, 그 人材 德望이 실로 반드시 무리 가운데에서 특출하게 뛰어나 卓然히 一世의 師表가 되는 사람으로 이를 삼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사람을 얻지 못하고 쓸데없이 그 칭호만 도둑질한다면, 지금 教授·訓導 노릇을 하면서 그 직분을 다하지 못하는 자와 다를 것이 없으므로, 뜻을 가진 선비는 반드시 失意에 차서 돌아갈 것입니다. 도리어 서원에 손해가 될까 저으기 두렵습니다.⁴³⁾

라고 말해, 山長 혹은 洞主라고 이름붙여진 서원의 지도자 선택에, 엄격한 심사를 거쳐 「一世之師表」에 상응하는 인물을 뽑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은 바로 이 점을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V. 서원 敎學의 내용에 관한 퇴계의 견해

퇴계는 중국에서의 서원 성립의 경위와 그 존재의의,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지도자다운 사람의 선택의 중요성을 되풀이 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퇴계가 목표로 삼았던 서원 敎學의 참다운 본연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 내용의 것이었을까.

퇴계는 前掲 「伊山書院記」 가운데 「然則今何所從事而可乎」란 一句 다음에 이어서, 서원 敎學의 모범으로 삼을 만한 것으로, 朱子の 「白鹿洞書院揭示」,⁴⁴⁾ 「白鹿洞賦」,⁴⁵⁾ 「衡州石鼓書院記」,⁴⁶⁾ 및 張南軒(名은 식,

43) 同卷 9, 上沈方伯書: 滉謹按故事, 凡書院必有洞主或山長, 爲之師, 以掌其教. 此一件大事, 尤當舉行. 但此須擇於遺逸之士, 或閑散之員, 而其人才德望, 實必有出類超群之懿, 卓然爲一世師表者, 乃爲之. 如不得其人, 而徒竊其號, 則與今教授訓導之不職者無異, 有志之士, 必望望而去之. 竊恐反有損於書院.

44) 朱子文集 卷 74

45) 同卷 1

46) 同卷 79

字는 敬夫)의 「潭州重修嶽麓書院記」⁴⁷⁾를 들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五倫을 근본으로 삼아 理를 궁구하고 실천을 돈독히 하는 것은 朱선생의 白鹿洞規이다. 伊尹이 뜻한 바에 뜻을 두고 顏淵이 즐겨한 그 학문을 배우며, 誠과 明이 함께 나아가고 敬과 義가 서로 같이 서는 것은, 또한 그 (白鹿洞)賦詠에 보이는 것이 그러하다. 仁으로써 道를 전하고 그 民生을 구하려고 한 것은 張南軒이 嶽麓의 여러 君子들에게 기대한 바가 크다. 마음이 아직 움직이기 전에 그 온전함을 기르고, 마약 마음이 움직일려고 할 때 그 기미를 살펴서 善이면 이를 확충하고, 惡이면 이를 극복하여 제거한다. 이 또한 朱선생이 저 石鼓의 諸生에게 下學의 공효로써 보여준 것도 지극하다. 그러므로 이에 아울러 취하여 諸君들에게 이를 읽히려고 한다. 만약 훗날 조정의 命으로 山長제도를 만들고 巨儒를 얻어 가르침을 창도한다 하여도, 그 가르침을 행하는 所以는 역시 이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실로 이는 제군들의 본성 가운데 갖추어져 있으니, 어찌 다른 것에서 구하기를 기다릴 것이냐. 제군은 이에 힘 쓸지어다.⁴⁸⁾

퇴계가 여기서 인용하고 있는 「白鹿洞書院揭示」, 「白鹿洞賦」, 「衡州石鼓書院記」, 「潭州重修嶽麓書院記」의 四者は, 모두 宋儒가 서원에 의탁한 敎學의 正道를 아주 잘 표명하고 있는 것이라 하여, 서원에 관하여 설명할 때 항상 인용되는 유명한 문장이다. 퇴계도 이 네 문장을 제시해서, 서원의 교사와 학생들에게 올바른 지침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에 의해서 퇴계가 마음 속에 그리고 있었던 서원 교학의 이상적인 모습을 알 수 있게 된다.

47) 南軒先生文集 卷10

48) 退溪全書 卷42, 伊山書院記: 本之五倫, 而以窮理篤行爲學者, 朱先生白鹿洞規也. 志尹學顏, 而誠明兩進, 敬義偕立者, 又其見於賦詠者然也. 仁以傳道, 而欲濟斯民, 張南軒所望於嶽麓諸子者衆矣. 養其全於未發之前, 察其幾於將發之際, 善則擴而充之, 惡則克而去之. 又朱先生示夫石鼓諸生, 以下學之功者至矣. 故於是并取以爲諸君誦焉. 如使異日朝命設山長, 得巨儒而倡敎, 其所以爲敎者, 亦不過是. 而實具於諸君所性之中矣. 尙何事於他求哉. 諸君其勉之.

우선 「白鹿洞書院揭示」를 살펴보면, 백록동서원에 관해서는 이미 「上沈方伯書」를 논하는 곳에서 약간 언급한 것처럼, 그동안 퇴락하여 황폐해 있던 것을 다시 일으킨 사람은 주자였다. 여기서 배우는 학생들을 위하여 주자가 지은 「揭示」는 이 서원만이 아니라 주자학의 기본경전으로서, 후세 주자학자들 사이에서 널리 존송되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퇴계도 그 중의 一人으로,⁴⁹⁾ 퇴계가 서원의 학생들에게 제시한 「本之五倫, 而以窮理篤行爲學云云」이란 一文도 이 주자의 「揭示」에 기초하는 것이었다. 주자는 「揭示」 가운데에서 옛 성현이 사람들에게 학문을 하도록 가르치는 이유는, 「義理를 講明함으로써 그 몸을 닦고, 그러한 후에 미루어 다른 사람에게 미치게 함」에 있다고 하면서, 이 「講明義理, 以修其身, 然後推以及人」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五教之目 즉 맹자의 이른바 오륜을 맨먼저 들고 있다. 「父子有親, 君臣有義, 夫婦有別, 長幼有序, 朋友有信」의 오륜은 유자가 전통적으로 존중해 온 가장 기본적인 도덕이며, 주자는 이것이 우리 인간 본성에 뿌리박고 있다고 하여, 백록동서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수득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學修 내용으로 삼았다. 퇴계가 「擬與豐基郡守論書院事」에서 「尊賢講道」라 말하고 있고, 또 「戊辰六條疏」에서 「明道術」이라 말하고 있는 이른바 道·道術은 주자가 말한 이 「講明義理」의 義理와 같은 의미로, 「天命에서 나와서 彝倫에서 행해지는 것으로써, 天下古今이 다 같이 이로 말미암는 길⁵⁰⁾」이라고 퇴계는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彝倫이란 바로 五倫을 가리키고 있다. 그리고 이 오륜을 바르게 실천하기 위해서는 「以窮理篤行爲學」이란 방법이 요구되는데, 이것은 『中庸』 20장에 典據를 두고 있는 「博學之, 審問之, 謹思之, 明辨之」(주자는 이 넷을 理를 궁구하는 所

49) 退溪가 朱子の 「白鹿洞書院揭示」를 얼마나 높이고 있었는가는, 「聖學十圖」 가운데 제5도로 삼아, 帝王의 학문도 이를 모범으로 본받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점에서도 엿볼 수 있다. 또한 退溪가 이 「白鹿洞書院揭示」를 「揭示」라고 하지 않고 「規」라고 한 점에 주의를 요한다.

50) 退溪全書 卷6, 戊辰六條疏: 何謂道術, 出於天命而行於彝倫, 天下古今所共由之路也.

이라 하고 있다.)와 「篤行之」를 의미하는 것으로, 程子 이래 宋儒가 학문하는 방법으로서 중시해 온 것이다. 주자는 이것을 백록동서원에서 배우는 학생들의 공부하는 순서로 채용하고 있는데, 퇴계도 역시 이것을 서원교학의 기본으로 삼고 眞知實踐의 學이라 하여 높이고 있다.⁵¹⁾

다음 「白鹿洞賦」를 살펴보면, 퇴계의 「伊山書院記」에 나오는 「志尹學顏」과 「迎鳳書院記」에 나오는 「篤志願學」이란 文句는, 「白鹿洞賦」 가운데의 「莘摯가 품었던 바를 성실히 하고 巷顏이 보존한 바를 삼가 지킨다」는⁵²⁾ 文句를 바꿔 말한 것으로, 원래는 周濂溪의 『通書』 志學章 제 10에 그 典據가 있다.

聖人は 하늘과 하나됨을 希求하고, 賢人は 聖인이 되는 것을 바라고, 선비는 賢인이 되기를 원한다. 伊尹·顏淵은 위대한 賢者이다. 伊尹은 자신이 모시는 임금인 堯舜과 같은 훌륭한 군주가 되지 못하고, 百姓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만족한 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마치 대중 앞에서 자신이 채찍질을 당하는 것처럼 깊이 부끄러워 했다. 顏淵은 엉뚱한 다른 사람에게 화풀이를 하지 않았으며, 같은 실수를 두 번 하는 일이 없었고, 장기간 인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았다. 우리들이 만약 伊尹이 뜻한 바에 뜻을 두고, 顏淵이 실천한 것을 배운다면, 伊尹·顏淵 이상으로 진보하면 聖인이 될 것이고, 伊尹·顏淵의 수준에

51) 同卷 6 戊辰六條疏 제3 敦聖學, 立治本 條 참조

52) 允莘摯之所懷, 謹巷顏之攸執. 莘은 伊尹이 발탁되기 전에 농사를 지었던 地名. 摯는 伊尹의 名. 伊尹은 湯王을 도와 夏의 桀王을 토벌하고 殷나라를 세우는데 큰 공을 세운 殷初의 名宰相. 湯王 沒後 外丙·中壬 등 역대 王을 모신 후 湯王의 손자 太甲의 재상이 되었다. 太甲이 暴虐하여 湯王의 법에 따르지 않으므로, 太甲을 桐宮에 추방했다가 改過하자 3년 후 天子로 삼아 보좌했다. 伊尹은 儒家의 「修己治人」 사상의 治人 즉 仕宦의 모범이라 할 수 있다. 巷顏은 「論語」 雍也篇 「回也, 一簞食, 一瓢飲, 在陋巷, 人不改其憂, 回也不改其樂」에 典據를 갖는 말로서, 평생 누추한 동네에 살면서도 道를 즐기면 산 顏淵을 가리킨다. 顏淵은 「論語」 述而篇의 「用行舍藏」, 道義가 실현되지 않는 亂世에는 은거하여 修己하면서 道를 후세에 전하는 「舍藏」의 모범이라 할 수 있다. 이 「顏子所好何學」論은 宋代 道學者들에게 큰 사상적 영향을 끼쳤고, 朝鮮朝 사상 형성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달한다면 현인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설사 그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훌륭한 인간이라는 명성은 잃지 않을 것이다.⁵³⁾

주자는 이 「志伊尹之所志, 學顏子之所學」을 백록동서원에서 배우는 학생들이 반드시 爲學의 기본자세로 삼아야 한다고 했던 것이다. 이것은 서원을 단순히 강학하는 장소로만 생각했던 것이 아니고, 도의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장소, 즉 유자의 이상인 「修己治人の道」를 修得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最良의 교육기관으로 생각하고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또한 퇴계의 이른바 「誠明兩進, 敬義偕立」이란 二句는 이것도 주자의 「白鹿洞賦」에서 인용한 것인데, 『中庸章句』 제 21章의,

誠으로 말미암아 밝아짐을 性이라 이르고, 明으로 말미암아 誠實해짐을 教라 이르니, 성실하면 밝아지고, 밝아지면 곧 성실해진다.⁵⁴⁾

가 그 典據이다. 또한 『易』 坤卦 文言傳에, 「君子敬以直內, 義以方外」라 기술되어 있는 것을 인용하여, 유학의 입장이 내외를 일관하는 사상임을 명시한 것이다.

그 다음 張南軒의 「潭州重修嶽麓書院記」를 살펴보면, 宋朝의 4대 서원 가운데의 하나인 湖南의 嶽麓書院도, 한 때 廢絶의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南渡 후의 乾道 元年, 知潭州荆湖南路安撫使였던 劉珙에 의해 중건되었다. 「潭州重修嶽麓書院記」는 그 다음해 冬 11월에, 劉珙의 快擧를 기리기 위해서 張南軒이 찬술한 것이다. 그 가운데에서 張南軒은, 무엇 때문에 유공은 서원을 재흥했는가, 그 眞意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53) 通書 志學章 第10. 聖希天, 賢希聖, 士希賢. 伊尹顏淵大賢也. 伊尹恥其君不爲堯舜, 一夫得其所, 若撻于市. 顏淵不遷怒, 不貳過, 三月不違仁. 志伊尹之所志, 學顏子之所學, 過則聖, 及則賢, 不及則亦不失於失令名.

54) 中庸章句 제21장: 自誠明謂之性, 自明誠謂之教. 誠則明矣, 明則誠矣.

劉侯가 이 快學를 행하신 것이, 어찌 그대들로 하여금 무리지어 하는 일 없이 안일하게, 다만 과거시험과 利祿을 취할 궁리만 하게 하기 위해서였겠는가. 또한 어찌 그대들로 하여금 言語文詞의 기교를 익혀 쓰도록 할 뿐이었겠느냐. 생각컨대 인재를 육성하여 이 道를 전하여 이 백성들을 구제하려고 한 것이다.⁵⁵⁾

퇴계가, 「仁以傳道, 而欲濟斯民, 張南軒所望於嶽麓諸子者衆矣」라고 기술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장남헌의 말을 인용하여 한 발언이다. 유공이 악록서원을 재흥한 목적은, 「決科利祿之計」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또한 「言語文詞之工」을 습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성인의 도를 전해, 천하만민을 구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仁人을 양성하는 데 있다고 한 장남헌의 발언은, 악록서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건 기대가 얼마나 컸는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 퇴계의 견해이며, 이것도 서원을 「尊賢養士講道」의 장소로 본 퇴계 서원관의 특색을 고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면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衡州石鼓書院記」를 살펴보면, 이것은 唐代 이후 오랜 전통을 가진 衡州의 石鼓書院을 재흥시킨 宋若水 등 數人의 공적을 기려 주자가 찬술한 것이다. 이 가운데에서 주자는 그간 국학·향교의 과거를 위한 교육이 초래한 폐해를 極論하고, 서원성립의 경위와 그 존재의의를 밝히고, 최후에 『中庸』 首章에 적혀 있는 「致中和」의 공부에 근거하여, 서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먼저 종사해야 할 「下學의工夫」로서, 「養其全於未發之前, 察其幾於發之際, 善則擴而充之, 惡則克而去之」 즉 喜怒哀樂 未發時의 存養의 공부와 已發時의 省察의 공부를 들고 있다. 이는 주자 수양론의 핵심이다. 주자가 여기에서 특히 「下學之功」에 언급하고, 그리고 또한 퇴계가 이에 관해서 「又朱先生示夫石鼓諸生, 以下學之功者至矣」라고 기술하고 있는 것은, 前揭 장남헌의 「潭州重修嶽麓書院記」가 단번에 「傳道濟民」이라고 하는 고원한 경지를 강

55) 侯之爲是舉也, 豈將使子群居族譚, 但爲決科利祿計乎. 抑豈使子習爲言語文詞之工而已乎. 蓋欲成就人材, 以傳斯道, 而濟斯民也. 云云.

조하여, 서원에서 배우는 학생들에게 과중한 책무를 부과시켜 준 것은, 「下學의 功」으로 보충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퇴계는 주자와 장남현이라고 하는 두 선현의 서원 교학에 관한 대표적인 발언을 인용하여, 서원의 학문이, 決科利祿을 목적으로 하는 국학·향교의 교육과는 전혀 이질적인 것임을 밝힘으로써, 서원의 師生에게 교학의 정도를 교시했던 것이다.

VI. 서원 안의 廟祠에 관한 퇴계의 견해

이상은 퇴계가 어쩌서 서원을 것처럼 중시하였는가, 그 이유를 논하고, 더 나아가 서원 창설기에 임하여 퇴계가 이룩한 역할 및 성과가 지대하였음을 기술하였다. 그런데 퇴계가 68세 되던 해 지은 「易東書院記」⁵⁶⁾ 冒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서원의 제도가 근래 東方에 만들어져, 嶺南 州郡에 건립되어 있는 다른 여러 도읍에 비하여 가장 먼저 설치되고 또한 그 수도 많다. 대체로 前賢이 머물러 영향을 끼친 곳을 다투어 사모하고 이를 본받지 않음이 없다. 생각컨대 德을 높이고 賢人을 表彰하며, 즐겨 인재를 육성하는 것은 본래 인심이 다 같이 원하는 것으로, 王政이 마땅히 가상하게 여겨야 할 것이다. 우리 禮安縣은 토지는 비록 협소하나 산천이 수려하고 인물이 蔚然하다. 文獻으로 이름남이 예로부터 있었다. 縣의 鄉校 외에 山林에 의거하여 한적한 넓은 곳에 접하여 儒館을 설치하여 道를 강론하고 사업을 익힘이 어찌 가히 없으리오. 하물며 高麗朝 禹祭酒선생은 만년에 退居하여 실로 이 땅에 계셨고, 지금도 자손들이 역시 이곳에 살고 있다. 만약 史傳에 실린 선생의 忠義大節을 상고해 보면 이미 이것으로써 天地를 움직이고 山嶽을 감동시켰으니, 經學의 밝음과 進退의 바름이 남보다 크게 뛰어난이 있는 것으로, 後學의 師範이 되고 가히 百世토록 廟食할 수 있는 사람은 先生이 아니고서 누가 있을 것인가

56) 退溪全書 卷42

가.⁵⁷⁾

이一文에 의하면, 조선조 서원의 설립이 高麗朝 儒臣인 安珦의 舊居跡에 건립된 백운동서원을 효시로 해서, 특히 영남지방에 성행했음을 알 수 있다. 그 가운데의 하나가 1567년 퇴계가 67세 되던 해, 퇴계의 고향인 예안현에 건립된 역동서원이며, 이 역동서원의 설립경위를 기술한 것이 다름아닌 「易東書院記」이다. 「書院記」에 의하면, 이 역동서원도, 고려조의 유신인 禹倬이 晩年에 隱棲했던 곳에 설립되었던 것이다. 우탁은 『程氏易傳』을 처음으로 동방에 전래한 사람이었으므로 「易東先生」이라 불리웠고, 이러한 연유로 서원이름이 「易東」이라 명명되었던 것이다. 역동서원이든 백운동서원이든 간에 이들 서원의 공통점은,

우리나라 서원 역시 마침내 今日에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모두 가르침을 넓히고 돈독함을 생각하고 근원을 化育하는 所以이다. 廟를 세워 先賢을 제사하는 것은 道를 높이고 人材를 진작시키는 방법으로서 가장 갖추어진 것이다.⁵⁸⁾

라고 적혀 있는 것처럼, 서원은 教學思索의 道를 넓히고 敎化의 根源을 확고히 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이러한 교육효과를 일층 높이기 위하여, 서원 가운데 별도로 廟祠를 설치해서 향토 출신의 선현을 제향하는 일이 동시에 행해졌다. 물론 제향할 선현이 없어서 단지 山林 가운데 넓은 곳을 택하여 서원을 설립한 예도 있으나, 대다수의 서원은 선현의

57) 書院之制, 近作於東方, 嶺南州郡之建置者, 比諸道諸邑, 爲最先而居多矣. 凡有前賢留播芬之地, 莫不競慕而爭效之. 蓋崇德表賢, 樂育人材, 固人心之所同願, 而王政之所宜嘉尚者也. 吾禮爲縣, 雖壤之褊小, 山川秀異, 人物蔚然. 文獻之稱, 自古昔. 縣校之外, 依山林卽開曠, 制置儒館, 以講道肄業, 安可無也. 夫麗朝禹祭酒先生, 晩年退居, 實在茲土, 而至今子孫猶存焉. 若稽史傳所載先生之忠義大節, 既是以動天地撼山嶽, 而經學之明, 進退之正, 有大過人者, 則爲後學師範, 可以廟食百世者, 非先生而誰哉.

58) 同卷 42 迎鳳書院記: 我東書院, 亦昉於今日. 皆所以廣敎思敎化原也. 而其有廟以祀先賢者, 則其於崇道作人之方, 尤爲非也.

옛 遺跡에 건립된 것이 통례이며, 반드시 묘사가 부설되어 있었던 것이다. 여기서 묘사에 있어서의 祭享儀禮의 문제가 일어나게 된다.

퇴계는 이 묘사의 문제를 서원 교학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지극히 중요한 문제라 하여, 『退溪全書』 卷12의 「答盧仁甫書」, 同卷20 「答黃仲舉書」 등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대체로 학교를 설립함은 그 누군들 道學을 위한 것이 아니겠는가. 서원에 있어서의 오로지 道學을 위한다는 意義가 더욱 크므로, 賢人을 祭享함에 있어서의 道學을 위주로 삼는 것이 좋다.⁵⁹⁾

대체로 중국의 서원을 말한 것 같으면, 또한 일률적이 아니다. 단지 先聖과 先師만을 모시기도 하고, 혹은 盧仁甫의 편지에서 열거한 것 같이 모두 道學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도 하다. 그렇다면 文烈公의⁶⁰⁾ 忠節을 가지고 비록 서원에 모신다고 하더라도 옳지 않은 것은 없을 듯하다. 다만 서원은 본래 道學을 밝히기 위하여 설립된 것이다. 사람이 道學을 하지 아니하였는데, 廟祠에 모신다는 것은 석연치 않은 것이다.⁶¹⁾

라고 기술되어 있는 것처럼, 묘사에 제향하는 선현은, 서원에 따라 여러 형태이나, 가능하다면 道統에 서 있는 인물 즉 도학자가 좋다는 것이 바로 퇴계의 생각이다.

영봉서원은 실은 당시 星州의 牧使로 근무하던 盧仁甫가⁶²⁾ 성주 출신인 李兆年과 李仁復⁶³⁾과, 또한 星州 출신은 아니었지만 이 지방과

59) 同卷 12, 答盧仁甫書: 大抵學校之設, 誰非爲道學耶. 而在書院則爲道學之意尤專, 其祀賢也, 以道學爲主可也.

60) 李兆年(1269~1343)의 諡號. 字는 元老, 號는 梅雪堂 또는 百花軒. 1294년 급제하여 忠烈·忠宣·忠肅·忠惠王 등 여러 왕을 섬겼으며, 星山君에 봉해졌다.

61) 同卷 20, 答黃仲舉書: 夫以中朝書院言之, 亦非一概. 或只祠先聖先師, 或祠其地之先賢, 或無廟祠而就其所祠, 又或非盡道學之人, 如盧書所舉者. 然則李文烈公忠節, 雖祠於院, 似若無不可者. 但書院本爲明道而設. 人非道學而廟祠未安云云.

62) 1516~1568. 名은 慶麟, 號는 四印. 李栗谷의 岳父.

63) 李文烈公의 孫子. 字는 克禮, 號는 樵隱, 諡號는 文忠.

연고가 깊었던 金宏弼⁶⁴⁾ 등 세 사람의 선현을 顯彰하기 위하여, 山林 가운데 조용하고 넓고 경치가 좋은 곳에 건립한 것이다. 문제는 이 3인의 선현을 묘사에 제항함에 있어서, 그 主從配列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퇴계와 盧仁甫 그리고 黃仲學 三人 사이에서 議論이 전개되었던 것이다. 그 상세한 의론에 대해서는 생략하나, 그 가운데에서 퇴계는 대저 서원이란 도학을 위하여 설립된 것이므로 서원에 묘사하는 선현도 도학자를 중심으로 해야만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⁶⁵⁾

VII. 퇴계의 篤志願學정신

퇴계가 이처럼 서원의 설립목적을 「尊賢講道」에 둔 이유는, 어디까지나 유학의 기본정신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유학은 「修己治人」을 綱領으로 삼고 있는 실천철학이다. 공자는 일찍이 「修己安百姓」을⁶⁶⁾ 정치적 이상으로 삼았고, 맹자도 이 정신에 입각하여 가족질서를 파괴하는 墨子の 兼愛사상과 사회국가질서를 파괴하는 楊朱의 爲我사상을 맹렬히 공격한 바 있다.⁶⁷⁾ 주자도 공맹의 정신을 본받아 『大學章句』 三綱領八條目 注에서 「格物·致知·誠意·正心·修身·齊家·治國·平天下」, 환언하면 修己治人の 道理의 중요성을 온힘을 다 기울여 설명하고 있다. 인간은 마음 속에 내재된 天理인 이 明德을 밝히는 공부를 통해 자기혁신을 도모하여야 하고, 자기혁신을 성취한 사람은 이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를 다른 사람에게도 推及시켜 그 사람 역시 明德을 밝혀 자기혁신을 하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미루어 나가 백성들까지 혁신시켜 平天下에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 주자의 삼강령 팔조

64) 1454~1504. 字는 大猷, 號는 寒暄堂, 諡號는 文敬. 燕山君 甲子士禍 때 화를 당한 道學者.

65) 退溪全書 卷3, 詩, 陶山雜詠

66) 論語 憲問篇

67) 孟子 등文公下

목에 대한 기본사상이다.

수신하여 덕성을 함양한 사람은 이처럼 반드시 명덕을 천하에 밝혀야 할 사명이 있으므로, 자기 몸을 닦은 후에 정치적으로 경륜을 실현시키는 이 수기치인의 정신은 유가의 핵심사상이다. 「白鹿洞書院揭示」에서 주자가 서원교육의 이념을 「講明義理, 以修其身, 然後推己及人」에 두고 있는 것도, 실은 이러한 수기치인 정신에 입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儒者가 관직에 나아가는 것은 단순히 입신출세하여 신분상승을 기도하는 개인적인 차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처럼 하늘로부터 받아 내재하고 있는 道義를 실현해야 한다는 사명이 유자에게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기에 자신의 몸을 수양함이 아직 未達하여 학문이 지극한 곳에 이르지 못했을 때에는 함부로 관직에 나아가 세상을 경륜해서는 안되고, 설사 등용된다 할지라도 자신의 뜻을 펼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때를 헤아림이 필요하다고 퇴계는 말하고 있다. 기대승에게 답한 글에서,

선비가 세상에 태어나 출세를 하거나 못하거나, 때를 만나거나 만나지 못하거나 간에 오직 몸을 깨끗이 하고 道義를 행할 뿐이며, 禍福은 논하지 않는다. 일찍이 우리 東方의 선비들 가운데 道義에 뜻을 두고 사모하면서도 세상 환란에 걸려드는 일이 있었는데, 이는 그 원인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학문이 아직 지극한 곳에 이르지 못했는데도 자처함이 지나치게 높고, 때를 헤아리지 못하면서도 세상을 經綸하는 데는 용감했기 때문이다.⁶⁸⁾

라고 벼슬길에 나아가는 기대승에게 忠言을 해 주고 있다.

비록 大人의 재주와 德이 있다고 하더라도 때를 헤아리지 못하고 움직

68) 退溪全書 卷16 答奇明彥: 夫士生於世, 或出或處或遇或不遇, 歸潔其身行其義而已. 禍福非所論也. 然嘗怪吾東方之士, 稍有志慕道義者, 多罹於世患, 是雖由地人澆之故, 亦其所自爲者, 未有盡而然也. 其所謂未盡者無他, 學未至而自處太高, 不度時而勇於經世.

이면, 나라에도 무익하고 자신에게도 손실이 있다.⁶⁹⁾

는 것이다. 『論語』에도 「학문하여 여유가 있으면 벼슬을 한다」⁷⁰⁾, 「修己安百姓」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儒家는 修己를 治人の 선결요건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태어난 시대가 험난하여 그 뜻을 펴서 도의를 실천할 수 없을 때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여기에 유자의 出處進退 문제 즉 道統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세상에는 언제나 태평성대만 계속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기에 공자도 「도가 장차 행해지는 것도 命이며, 도가 장차 弊害지는 것도 命이다.」⁷¹⁾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天下에 도가 있으면 나타나 벼슬하고, 도가 없으면 숨어야 한다」⁷²⁾는 것이 공자의 생각이다. 修身하여 덕과 학문을 갖추고 있는데도 나라에서 써주지 않으면 「숨어살면서 그 뜻을 구하고, 義를 행하여 도를 달성한다」,⁷³⁾ 「써주면 道를 행하고, 버리면 은둔한다」⁷⁴⁾는 것이 공자의 출처관이다.

이러한 공자의 생각을 보다 적극적으로 천명한 사람이 맹자이다. 修身出世하여 「뜻을 얻으면 天下 百姓과 더불어 이를 행하는 것이오, 뜻을 얻지 못할 때에는 홀로 그 道를 행할 따름이다」⁷⁵⁾라는 것이다. 또한 「옛날 사람들은 뜻을 얻으면 그 혜택이 백성들에게 미치고, 뜻을 얻지 못하면 자신을 수양하여 세상의 본보기가 되려고 하였다. 궁한 처지에서는 오히려 자신을 깨끗이 하려고 하였고, 영달해서는 천하의 사람들까지 착한 일을 하게 하였다」⁷⁶⁾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맹자의 기

69) 退溪先生言行錄 卷3 出處 李德弘 記錄: 假使有大人之才德, 如不量時而動, 則無益於國家而有失於己分.

70) 論語 子張篇

71) 論語 憲問篇

72) 論語 泰伯篇

73) 論語 季氏篇

74) 論語 述而篇

75) 孟子 滕文公章句下

76) 孟子 盡心章句上

본정신에 입각하여 유가의 도통의식을 확립한 사람은 다름 아닌 南宋의 주자였다.

조선 시대를 풍미한 유학은 宋學 그 중에서도 주자학이 주축을 이루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송대 유학의 특징은 漢·唐의 豪族·貴族과 같이 타고난 신분예 의해 출세하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士大夫라 일컬어지는, 성현이 기록한 경전을 공부하여, 경서에 적혀 있는 정신을 체득한 讀書人들이, 科擧라고 하는 관리채용시험에 합격하여 관직에 나아가 정치인이 된다고 하는 점에 있었다. 조선시대에 있어서도 관직에 나아간 사람들은 경전을 공부하여 科擧에 합격한, 말하자면 학자인 동시에 정치가인 사람들이었다. 따라서 이처럼 학자가 科擧라고 하는 관리채용시험을 통해서 정계에 진출하는 제도하에서는 봉당을 이루고, 심한 경우에는 당파를 이루어 정치적 갈등을 일으키는 수가 많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같은 선생 아래에서 동문수학한 사람들이란 그 학문적 경향이나 정치적 이념문제에 있어서도 동일노선을 취하게 되기 쉬우므로, 학자가 정치인이 되는 유가의 기본구조에서는 오히려 당연한 일이라 할 것이다. 조선시대의 정치적 갈등을 「조선에서 儒者의 파벌당쟁이 격렬하고, 오랜동안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계속해 왔다」⁷⁷⁾고 한 일본 학자의 발언은 식민지사관의 발상으로, 하루 빨리 불식되어져야 할 것이다. 정치에 당쟁이 있었던 것은 어느 나라에나 있었던 지극히 당연한 일로, 조선시대의 정치적 갈등만을 특별히 취급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원시유교가 바탕을 이루었던 삼국시대와 불교사상이 깊숙히 뿌리내린 고려의 사회적·학문적 토양 가운데, 주자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상이 들어와 토착화 해가는 과정에서, 불교의 영향으로 인한 조선 조 유학자들의 학문관의 차이가 정치이념의 相異로 진전되어, 학문적으로 생긴 갈등과 충돌이 정치적으로는 이른바 사회와 당쟁이라는 형태로 전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77) 日本朱子學と朝鮮 阿部吉雄 東大出版會, 1978

퇴계는 61세 되던 해, 鄉里인 陶山에 돌아가, 자그마한 서당을 짓고, 林泉魚鳥와 노니는 즐거움을 맛보면서, 이른바 「悅道義, 頤心性」의 공부에 힘쓰고 있는데, 이것도 단순히 은둔해서 자연을 즐기기 위해서는 아니었다. 1498년에 일어난 무오사화, 1519년의 기묘사화, 그리고 1545년에 일어난 을사사화에서는, 이 해 9월 넷째 형인 瀼가 사화의 희생이 되고, 10월에는 퇴계 자신도 李芑의 간계에 의해서 관직을 박탈 당했다. 퇴계 자신은 물론이고, 나라 전체가 혼란의 도가니에 빠져 있었다. 1550년 8월에는 드디어 四兄 溫溪公이 유배가는 도중에서 서거한다고 하는 최악의 사태가 일어났다. 장기간에 걸친 사화의 여진과 명리와 봉록만 탐내는 소인배들 틈바구니 속에서는 도의의 실현이란 불가능하다. 이처럼 도의를 실현할 정치적 상황이 되지 못하면 물러나 고향으로 돌아가 은둔하는 것은 유자에게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고향의 山林 속에서 맹자의 이른바 홀로 그 道를 실천하면서, 다시 천하에 도의를 실현할 때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 당대에 그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기에 뜻을 가진 유자들은 도를 후세에 전하기 위하여 후학을 교육하는 것이다.

퇴계가 「伊山書院記」에서 「志尹學顏」이라 하고, 「迎鳳書院記」에서 「篤志願學」이란 一句에 의탁하여 나타내려고 했던 의미도, 바로 이러한 정신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伊尹이 經世濟民의 道에 뜻을 두고 천하를 경륜하는, 유가의 이른바 治人의 모범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顏淵은 하늘로부터 받은 明德을 밝혀 수신하여 도의를 체득하였으나, 난세에 태어나 그 도의를 실현할 수 없음을 알고, 관직에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조용히 숨어 韜晦의 일생을 보낸 사람을 상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태평성대에 태어나 훌륭한 임금을 만났더라면 마땅히 伊尹과 같이 천하를 경륜하는 것이 유가의 이상이나, 난세에는 물러나 후세에 성인의 蘊蓄을 발명하여 이를 萬世無窮에 전해야 하는 것⁷⁸⁾ 역시 유가의 이상이라는 것이

78) 通書 聖蘊 卷29

다. 자기가 모시는 임금의 요순과 같이 되도록 깨우쳐 주고, 백성들에게도 堯舜之道의 혜택을 입게 하여 제 살길을 찾도록 도와주지 못하면 그것이 마치 자신의 잘못인 양 부끄럽게 생각했던 伊尹이 가졌던 그러한 정치에의 원대한 포부를 돈독히 가지고, 陋巷에 살면서도 가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아도 남을 원망하는 일 없이 안빈낙도의 생활을 즐기며 산 顏回의 爲學정신을 회구하며 살라는 퇴계의 이 「篤志願學」이란 간곡한 염원에서, 서당을 지어 제자들을 가르치고, 서원을 설립하여 「尊賢講道」를 강조해 온 유자 이퇴계의 이상을 읽을 수 있다.

오래 계속된 사회의 여진과 간신배들이 들끓는 혼탁한 세태하에서 도의의 실현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깊이 통찰한 퇴계는, 자신이 신봉하는 聖人の 道를 후세에 전하기 위하여, 부득이 관계에서 물러나고향으로 돌아와 도산서당을 지어 제자들 교육에 전념했던 것이다. 퇴계가 1565년 65세 때 지은 「書院十詠」 가운데 9개소의 서원의 설립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여하고 또한 그 의례제정에 깊이 관여한 것도 결단코 연고 없는 일은 아니었던 것이다. 따라서 퇴계를 오로지 隱逸의 생활을 회구했던 인물로 이해하는 것은 옳다고 할 수 없다. 퇴계에게는 張載의 이른바 「生民을 위하여 道를 세우고 往聖을 위하여 絶學을 잇는다」⁷⁹⁾고 하는, 儒者로서의 원대한 꿈이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퇴계는 맹자의 이른바 대장부였다고 할 수 있다.

퇴계가 서원교학의 기본으로 삼은 것은 「尊賢講道」, 「尊賢養士」의 정신이다. 「尊賢」에 대해서 말할 것 같으면, 하나는 지도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얻는 일의 중요성, 즉 師道의 확립이며, 다른 하나는 후배에게 모범이 되는 향토의 선현을 顯彰하는 일이며, 무엇보다도 道統의 傳에 관계가 있는 선현에 대한 존숭의 념을 잊어버리지 않는 일의 중요성이다. 「講道」라고 하는 면에 대해서 말하면, 決科利祿을 성취하기 위해

79) 張子全書 卷14 性理拾遺: 爲天地立心, 爲生民立道, 爲去聖繼絶學, 爲萬世開太平.

서가 아니고, 또한 언어문사의 세련됨을 습득하기 위해서도 아닌, 오로지 오륜이라고 하는 인륜의 도를 강습하는 곳에 서원교학의 기본이 있다고 하는 주장이다. 「養土」라고 하는 면에 대해서 말하면, 서원교학에 의해서만이 「篤志願學」의 土, 환언하면 언젠가 참으로 국가사회를 위해 공헌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고 하는 주장이며, 이것이 후일 서원 출신자가 정계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던 것이다.

창설기의 서원에는 上述한 바와 같은 서원 본래의 정신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적어도 퇴계의 의식 가운데에서는 서원교학의 본래정신이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이처럼 서원은 처음 설립 당시에는 유가의 기본사상인 「修己治人」, 「崇德廣業」⁸⁰⁾의 정신에 의해, 뜻을 얻지 못한 선비들이 경치좋은 조용한 산림에 은거하여 성인의 도를 닦으면서 「篤志願學」의 용지를 기르던 유학 본래의 긍정적인 私學 연구단체였으나, 학문한 사람이 과거를 통하여 정치가가 된다고 하는 유학의 특성 때문에, 서원 출신자가 과거에 합격해서 정계에 진출하는 자가 많아짐에 따라, 점차 서원의 성격에도 변화가 생기고, 후세에 이르면 퇴계의 뜻에 반해서, 서원은 지방 양반들의 정치세력 기반의 온상으로 악용된 것도 또한 사실이다. 특히 유학의 이러한 특성이 중국의 원·명왕조 교체기와 麗·鮮왕조 교체기와 서로 맞물리고, 또한 17세기 명·청왕조 교체기에 있어서 이러한 대외 정치현실의 변화에 당면하여, 현실인식에 대한 견해가 서로 달랐던 학자들의 학문과 사상의 차이가, 정치적 인식차이로 확대되어 일어난 것이 이른바 사화와 당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동인·서인의 분당, 남·북의 분당, 노론·소론의 분당, 그리고 남인과 노론 사이에 있었던 치열한 정권투쟁도 실은 이는 단순한 정권다툼이 아니라, 조선왕조의 존립과 기강을 위태롭게 하는 위기사태에 직면하여, 나라의 운명을 걱정하는 사대부들 사이에서 三綱五常論, 天人欲論, 聖學論, 華夷論 등에 입각한 출처진퇴관 등에 견해차이가 생

80) 周易 繫辭傳上

기게 된 결과, 이것이 정권과 연계됨으로써 초래된 결과인 것이다. 따라서 서원에 대하여 당쟁의 온상이라 비난해 온 식민지사관의 잔재도 용인하기 힘들거니와, 양반들의 기득권 유지 및 신분상승을 위한 본거지라는 서원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 대해서도 동조하기 힘들다. 그렇다고 하여 그간에 있었던 서원이 저질은 막심한 폐해에 대하여 부정하려는 것도 물론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서원에 대한 마이너스면만을 보고, 서원의 존재를 부정적으로만 본다면 그것 역시 잘못된 것이다.

조선의 서원은 중국서원의 典範을 본받아 성립되고 발전했다. 그러나 현재 중국에서는 지난날의 서원이란 단순한 過去의 遺物일 뿐이다. 그러나 조선의 서원은 옛날처럼 융성하지는 못하지만 오늘날도 역시 신성한 장소로 정중하게 보호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있다. 이러한 일은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전, 퇴계에 의해서 확립된 「尊賢講道」란 네 글자에 의하여 대표되는 서원의 건학정신이, 조선조 사림과 학자들의 마음에 連綿하게 계승되어, 현대 한국인의 정신생활의 주춧돌로서 지금도 強固하게 계승되어 살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서원이 지닌 프러스면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함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